

#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 230억 규모 국가예산확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추진 심 민 군수 환경부 관계부처 방문, 이용호 의원 협조 성과 거둬

임실군이 새해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2024년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예산 등 총사업비 230억원을 투입해 임실을 두곡리에 위치한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방류되는 하수처리수를 임실천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하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약 130억의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며, 2025년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기존 일 최대 처리용량 5,500톤의 하수처리시설이 7,300톤 규모로 1,800톤 증설된다.

또한, 갈수기 하루 5,000톤의 하수처리수를 임실천 상류로 방류할 수 있는 재이용시설을 갖추게 된다.

현재 임실 공공하수처리장은 2013년 증설되어 운영 중이다. 하수 발생량 대비 처리용량의 여유가 없어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 개발사업의 기초가 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 가압펌프시설 3개소와 압송관로 5.3km를 설치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설치되면 임실천의 부족한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 갈수기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 수질개선에 효과적일 전망이다.

특히, 임실천은 임실을 도심 중앙을 가로지르며 많은 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산책하는 지역주민과 방문객 등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결과는 심 민 군수가 그동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을 오가며 국비 확보에 힘쓴 결과이다.

심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은 환경부의 정책추진 방향의 변동으로 임실군 현황 여건상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환경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우리 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 설득해 왔다.

또한, 지역구 이용호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국회 단계에서 최종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임실군이 추진 중인 각종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전전한 물 순환 확산으로 하천의 수질개선과 정수 여건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신규 광역 소각시설 설치

### 국비 291억·도비 87.3억원 확보...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가시화

남원시는 신규 광역 소각시설(100톤/일) 설치를 위한 국비 291억원, 도비 87.3억원을 확보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이 증액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남원시에서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소각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2021년 12월부터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각시설 입지공모를 실시, 신청지역이 없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23개 읍면동 순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소각시설 확보의 시급성을 알렸다.

이어 타 시군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는 등 소각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시민 인식 제고에 발 벗고 나선 결과 총 7개 지역에서 입지 유망 희망을 신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의를 통한 객관적 평가를 거쳐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일원에 2023년 9월 입지 결정 고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속한 시설 설치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남원시는 매주 서울 국회와 세종 중앙부처, 전라북도 등 수차례 방문을 실시하였고,

관계자를 상대로 꾸준한 사업설명과 추진상황 등 남원시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피력하였다.

그 결과 2024년 국비 291억원을 시작으로 남원시 광역 소각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2026년까지 국비 291억원, 도비 87.3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원시가 계획한 예초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남원시는 사업장 인근에 소각시설 설치 이후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농촌보급자리의 친환경에너지 타운 등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고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정부의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국가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어 기쁘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2030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부 정책의 이행과 우리 시민의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남원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지원 대상자 모집

남원시는 2024년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 대상자를 내년 1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남원시 2년 이상 거주자이자 최근 2년간 모국 방문이 없는 등 기본조건을 충족한 다문화가족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남원시가족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방문 신청하면 되고, 선정되면 1가정당 최대 500만원 이내로 왕복항공료, 여행자보험료, 공항 왕복 교통비 등을 지원받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 참고 및 여성가족과(620-6207)와 남원시 가족센터(635-5474)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평가서 최우수 표창

남원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추진 상황과 특수시책 및 수법사례, 정책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남원시는 전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4년 연속 국토교통부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현재 남원시는 최근 5년간 전북 1위, 전국 2위 규모인 55여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5개 지구, 104개 마을을 2만1,305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는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마을이 사업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국공유지 합병을 통해 필지수를 줄여 7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황죽지구가 2년 연속 추가사업 공모에 선정돼 1.9억여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남원농기센터, 현장 실증사업 지원사업 공유회 개최

## 우수 공무원, 농업인 시상 등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촌지도사업의 우수성과를 알리고 농업인, 유관단체와 함께 공유하고자 2023년 농업기술센터 성과공유회를 28일 개최하였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가 현장실증사업을 비롯한 지원사업을 추진한 성과는 물론 24년도 농업 추진방향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올해 현장기술보급, 농업인교육, 미래농업 대응 등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 농업인에 대한 시상하며 축제와 같은 행사로 개최하였다.

특히 자율주행 트랙터 농작업, 갈색거저리 자동수분공급장치 발명 등 현장실증사업에 대한 사례발표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대한 농가의 현장감 있는 발표로 집중도가 높아졌으며, 남원에서 재배한 가뭄미로 가공한 빵류와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쌀가루로 만든 빵을 시식하고 비교하는 시간도 가졌다.

남원시 농촌진흥과 최정인 과장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의 우수성과를 알리고 농업인, 유관단체와 함께 공유하고자 2023년 농업기술센터 성과공유회를 28일 개최했다.

“내년에도 미래농업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신속히 농업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대학, 농협 등의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품목별 현장중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과 점검은 물론 2024년도 총 240건의 부서별 중점추진 사업과 신규사업 추진방향을 전반적으로 공유하며 민선 8기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행정성과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 주요업무 보고회 개최

순창군이 2024년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회를 통해, 역동적인 군정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군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영산회의

실에서 최영일 군수의 주재로 부군수, 전 실과소장,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군정철학과 방향을 공유하고, 2024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2023년도 운영성

과 점검은 물론 2024년도 총 240건의 부서별 중점추진 사업과 신규사업 추진방향을 전반적으로 공유하며 민선 8기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행정성과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 농업인 공익직불금 44억 지급

### 올해 소농 기준 120만원 지급

최영일 순창군수가 민선 8기 군정 5대 목표 중 하나인 '돈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순창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해 지역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군이 28일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군비 확대분 4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비 보조금 확대분은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농민 기본소득 지원 확대 사업으로,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과는 별개로 순창 거주자에 한해서 추가로 농가당 최대 78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 군수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핵심 사업으로 농업기본소득 지원 확대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선별적 복지 기조에 따라 전 농민에게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은 복지부의 협의가 어려워 농민 소득 증대 방안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군비 공익직불금 확대를 변경하였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처음 군비

공익직불금 확대분을 지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농 기준으로 현재 농민공익수당 연간 지급액 60만원과, 신규 도입된 공익직불금 군비 확대분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연간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실제로, 군은 작년에 한시적으로 6,745농가 대상 농가당 20만원씩 13억 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소농 기준 120만원,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소농 기준 농민수당 포함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농에 전념을 다해주시는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농민 소득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군비 지급대상은 올해 국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대상자가운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및 연접농지(0.1~3.0ha제한)를 경작하는 농업인 6,796농가이며 지급면적 6,255ha가 해당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